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판매 가격 우려 불구 5월 미 비즈니스 활동 개선
- Bloomberg: 전문가들, “미·중 관세 휴전으로 미 인플레와 침체 완화 전망”
- Bloomberg: 시카고 연준 총재 “단기 금리 인하 기준이 약간 높아졌다”
- Bloomberg: HSBC “미국 기업들 반수가 관세로 매출 25% 타격 예상”

[미국 금융]

- Bloomberg: 증시 하락... 트럼프 관세 위협에 채권으로 이동

[미세계 개혁안]

- NYT: 공화당 세제안 시행되면 전기차 판매 급감할 듯

[무역 전쟁]

- CNNBusiness: 트럼프, 유럽연합에 50% 관세 위협
- WSJ: 트럼프, 외국서 제조하면 애플에 25% 관세 위협

[주택]

- YahooFinance: 트럼프, 주택 기관 Fannie Mae등의 민영화 가능성 시사
- WSJ: 4월 주택 매매 2개월 연속 감소... 2009년 이후 최저치

[글로벌 경제]

- Bloomberg: 3월에 이어 4월 캐나다 소매 판매 증가
- WSJ: 일본의 4월 물가 전년 대비 3.5% 상승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고율 관세 국면 속, 대형 유통기업들의 대응 전략 달라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U.S. Business Activity Growth Improves Despite Concerns on Prices

판매 가격 우려 불구 5월 미 비즈니스 활동 개선

- 미 관세 조치가 일시 완화되면서 미국의 비즈니스 활동이 약간 회복되었다. 물론 여전히 악세를 보이고 있다.
- S&P 글로벌 종합 PMI지수는 4월에 19개월간 최저치였던 50.6에서 5월에는 52.1로 상승했다.
- 수출 주문을 줄고 공급망 지연은 가속화되고 있고 제품 가격은 상승했다.

WSJ 기사

Bloomberg: US Inflation, Recession Forecasts Ease on Trade Truce With China

전문가들, “미·중 관세 휴전으로 미 인플레와 침체 완화 전망”

- 블룸버그의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이코노미스트들은 미·중 간의 일시적인 관세 휴전에 따라 올해 인플레가 약간 완화될 것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침체 가능성성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
- 이들에 따르면 연준이 선호하는 지수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올해 말에 3.1%로 4월의 당초 예상치 3.2%보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he Bar for Near-Term Rate Cuts Is 'A Little Higher,' Fed's**Goolsbee Says****시카고 연준 총재 “단기 금리 인하 기준이 약간 높아졌다”**

- 시카고 연준 총재인 Austan Goolsbee는 향후 10개월에서 16개월간의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단기 금리 인하의 기준은 약간 높아졌다고 말했다.
- 그는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있고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금리 인하 기준이 좀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 그의 발언은 트럼프가 유럽연합에 5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나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Firms Face Biggest Hit on Trump Tariffs, HSBC Survey Says**HSBC “미국 기업들 반수가 관세로 매출 25% 타격 예상”**

-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 등과 비교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무역 관련해 미국 기업들 과반수 이상이 적어도 매출의 25% 이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조사됐다.
- 무역 관련 조사를 실시한 HSBC 홀딩스에 따르면 관세 때문에 조사에 참여한 미국 기업 중 4분의 1은 향후 2년 동안에 50% 이상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 반면에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4분의 1의 중국기업들이 25% 이상의 매출 타격을 예상했으며 과반수 이상의 중국 기업은 10%에서 25%의 매출 하락을 예상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Stocks Fall as Trade Jitters Spur Flight to Bonds****증시 하락... 트럼프 관세 위협에 채권으로 이동**

- 트럼프가 유럽연합과 외국산 애플 아이폰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혼들리고 있다.
- 주식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는 지난 202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이 채권과 국채로 몰리고 있다.
-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성장 둔화와 고물가로 이중 타격을 받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오늘 금요일 리스트 회피 심리가 커진 것이다.
- S&P 500과 나스닥은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Stoxx Europe 600 Index도 마찬가지다. 현재 애플 주식은 2% 이상 빠진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 세제 개혁안]**NYT: How Electric Vehicles are Targeted by the Republican Policy Bill****공화당 세제안 시행되면 전기차 판매 금감할 듯**

- 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혁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이 안에 포함된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세금 공제는 단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법안에는 당초 바이든 대통령 때 의회가 통과시킨 배터리 제조 보조금, 개인과 기업들의 전기차 구입시 제공받는 인센티브, 전기차 충전 관련 인센티브 등이 사라지게 된다.
- 이 법에는 또한 전기차와 전기 트럭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연간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NYT 기사

[무역 전쟁]

CNNBusiness: Trump threatens a 50% tariff on the EU
트럼프, 유럽연합에 50% 관세 위협

- 트럼프는 유럽연합이 관세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며 유럽산 제품에 50%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금요일 밝혔다.
- 그는 유럽연합의 관세 부과, 각종 무역장벽, 인위적인 통화 조정, 미국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한 소송 등으로 미국이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소셜 미디어에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이와 관련 오는 6월 1일부터 유럽에 50%의 관세 부과를 권고한다 (Recommend)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WSJ: Trump Threatens Apple With 25% Tariff on Foreign-Made iPhones
트럼프, 외국서 제조하면 애플에 25% 관세 위협

- 트럼프는 애플이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도록 요구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는 애플의 CEO인 Tim Cook에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인도나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제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그런 기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어도 25% 이상의 관세를 애플 아이폰에 물리겠다는 것이다.

WSJ 기사

[주택]

YahooFinance: Trump 'giving very serious consideration' to loosening US grip on Fannie and Freddie
트럼프, 주택 기관 Fannie Mae등의 민영화 가능성 시사

- 트럼프 대통령이 공사 성격을 띠고 있는 Freddie Mac(FMCC)와 Fannie Mae(FNMA)를 다시 민영화 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기관이 매우 잘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현금을 창출하고 있다. 때가 된 거 같다."라고 언급했다.
- Freddie Mac과 Fannie Mae는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하여 증권화함으로써 미국 주택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 회사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 두 모기지 기관을 감독하는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Bill Pulte 청장은 "이 기관들이 영원히 정부 관리 감독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단순히 시장의 안전성과 건전성뿐만 아니라 모기지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ahooFinance 기사

WSJ: Home Sales in April Fell for the Second Straight Month
4월 주택 매매 2개월 연속 감소... 2009년 이후 최저치

- 4월 기준 주택 매매가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0.5% 감소했다. 2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2009년 이후 4월 기준 가장 낮은 수치이다.
- 전국 주택협회(NAR)에 따르면 4월 기준 주택 가격 중간값이 41만 4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했다. 이는 역대 4월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 주택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고, 4월에는 관세 발표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져 구매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주택 시장 조사 회사 Zelman의 부사장 Ivy Zelman은 “수요가 다소 위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Canada Retail Sales Rose Again in April Despite Tariff War 3월에 이어 4월 캐나다 소매 판매 증가

- 캐나다의 4월 소매 판매가 잠정적으로 0.5% 증가했다. 이는 3월의 0.8%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Bloomberg 경제학자 설문조사에서의 전망치를 상회했다.
- 전체적으로 1분기 소매 판매는 1.2% 증가했다. 이는 2024년 후반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금리 인하가 소비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 몬트리올 은행의 선임 경제학자 Shelly Kaushik은 “4월 추산치에 따르면 3월에 이어 4월도 여전히 견조하지만,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소비자 심리 및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WSJ: Japan Consumer Inflation Picks Up on Higher Energy, Food Prices 일본의 4월 물가 전년 대비 3.5% 상승

- 일본의 4월 근원물가상승률(신선 식품 제외)이 3.5%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전기 및 가스 비용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4월 에너지 가격이 9.3% 상승했고, 쌀 가격이 98%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일본은행의 정책 과제로 남아있다.
- 일본은행(BOJ)의 Kazuo Ueda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치보다 낮으며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Business: Walmart got an angry message from Trump on tariffs. Then Home Depot and Target downplayed them 고율 관세 국면 속, 대형 유통기업들의 대응 전략 달라

-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 Home Depot, Target이 트럼프의 관세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지난 실적 발표에서 월마트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는 “관세를 흡수하라”고 말하며 월마트를 비판했다. 이후에 Home Depot과 Target은 가격 인상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며 트럼프와 충돌을 피하고 있다.
- Home Depot의 임원 Billy Bastek은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Target의 CEO Brian Cornell은 관세로 인한 ‘엄청난 잠재적 비용’을 경고하면서도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업체 다각화 등 다양한 수단이 있으며 가격 인상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CNNBusiness 기사

[보고서]

트럼프가 불붙인 탈미국... "채권시장 큰손들, 다각화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 속에 '큰손' 채권 투자들이 미국 이외 시장 비중을 늘리는 등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지난달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이어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과 그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으로 미국 국채 시장이 타격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장 중 한때 5.15%까지 올라 2013년 10월 이후 최고를 찍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